



환경일보 김익수 대표 인터뷰

Q) 다른 언론매체들과 구별되는 환경일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과 관련하여 환경일보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환경일보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경전문 신문입니다. 하지만 전문지임에도 환경에 대해서만 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주로 사회와 경제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일보는 우리 사회구조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환경을 논하는 쪽에서 가장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유엔에서 발표된 SDGs 12월 파리 협약 등의 내용들을 폭넓게 다루어 보도중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신문사에서 돈이 안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대중들은 언론이 타게팅 되어있는걸 좋아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따지다 보면 언론 타겟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수익 쪽에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언론의 사명감을 지키며 일하고 있습니다.

Q) 환경일보에서 일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첫째로는, 신문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니 어떠한 지원도 없어 순수하게 신문판매와 광고로 활동함으로 늘 경영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다 보니 대중들이 진정성을 알아주기 시작하여 저번 지지층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환경에 대한 실제 투자는 부족한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환경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문 한 부조차 사지 않는 무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매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어려웠습니다.

Q) 환경일보를 발행하면서 환경 문제와 관련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꽤나 많은 갈등을 겪어봤지만 크게 두가지 정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정책의 큰 골격은 중앙정부가 세우고 집행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천 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그 법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 중 하나의 예는 “현장지도단속권한”입니다. 이 현장지도권을 책임자와 경영자의 사적 관계를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 환경일보가 제보를 하는데도 시스템 상 잘 개선이 되지 않아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기업과의 갈등입니다. 정유사와의 갈등이었는데, 이들은 상당한 저유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유소가 남아 이사를 할 때 제대로 처리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행위였지요. 하지만 환경일보의 한계로 보도를 하고 고발을 해도 적당한 선에서 끝나고 처리가 안돼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Q) 사람들이 환경과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지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정책이 시행되면 반드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정책시행에 보다 활발해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의 의식개선입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난 이후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종합일보 외에도 전문지도 같이 읽어 문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대학에서 추진하는 그린캠퍼스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점과 보완할 점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세요.

그린 캠퍼스 사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활동이 아니라 대학의 환경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환경 경영이란 기업이나 모든 조직의 활동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지속가능성과 일맥상통하며 수익은 좀 줄어들더라도 환경적인 부분 고려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인 인재양성을 위해 캠퍼스의 녹색화 정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모든 활동에 지속가능성, 친환경성을 어떻게 집어넣을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 즉, 총장님과 이사장님들의 환경에 대한 변치 않은 확고한 신념과 사업 실천을 위한 완벽한 조직과 예산,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여대”에서는 몇 년 동안 녹색성장 과목을 만들어 필수로 지정하고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학교의 경영자들이 예산을 들여 조직을 만든 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깨우치게 한 최고의 방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대학교도 이처럼 미래에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내 것이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불소통 사회인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공동체로서 어울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의무를 빼고 권리만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아직 시민 개선을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통의 비전과 꿈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폭넓게 나누고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를 이루겠다는 노력들을 많이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Q)마지막으로 저희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에게 조언해 주실 말이 있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가지 않고 정책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도 많이 다녀보고, 세상을 넓게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익힌 것을 바로 홍보하여 그 지식을 학우들에게 더 나아가 모든 사회에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 지구를 지키는 나눔을 함께하세요”

고려대학교는 보다 친환경적인 그린캠퍼스 운영을 위하여 녹색환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눔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http://kugc.korea.ac.kr>)의 녹색기금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담당부서에 연락 및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에너지 안전팀
전화 02)3290-2765
홈페이지 <http://kugc.korea.ac.kr>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 인터뷰

서울 아리수 수질검사, 국제 기준보다 더 까다롭다

서울시 수돗물의 수질검사 항목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항목보다 늘어나고,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항목이 추가되는 등 아리수 수질 관리가 더욱 까다롭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아리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항목을 지난해 164항목에서 올해 170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WHO 권장 수질검사 항목 163개보다 7개 항목이 많은 것으로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게 됐다”며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올바른 수질정보 제공으로 언제나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시청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 '본격 가동'

지난 8월 8일 전력예비율이 6.5%대로 떨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에너지 비상시에만 발효하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을 본격 가동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조치 해제 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특히 11일 시행 예정인 에너지사용제한조치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점을 직접 방문해 이를 홍보하고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하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문 열고 냉방영업 시 지자체의 단속에 의해 1회 경고 후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4차 이상-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여름철은 통상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전력피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크시간대에 냉방온도를 준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투데이 에너지

전세계 녹색성장 방안 '함께 찾는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성장동력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가 오는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글로벌녹색성장주간 행사' 브리핑을 진행하고 전세계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과제를 추진해나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보 드 보 어 사무총장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추진과 정에서 전세계가 공동으로 당면할 수 있는 장벽에 대해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국제사회가 함께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또한 개도국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가들도 녹색성장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 에너지



Q.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비해 학생들에게는 많은 자유가 주어졌어요. 공부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가끔 큰 강당에 두 세명의 학생들만 앉아 있는데 에어컨과 전등을 다 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엄청난 낭비 아닌가요? 또, 이번 축제가 끝나고 나온 쓰레기들을 본 적이 있나요? 축제가 끝나고 민중광장에 쓰레기가 쌓였는데, 이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은 학교에서 나오죠. 학생들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공공재니까 과하게 쓰레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전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과 비교했을 때 건물도 많이 들어서서 캠퍼스가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만큼 녹지가 사라지고, 흙 길이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었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Q. '내 돈 내고 내가 쓰는데'라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 둔감한 것 같습니다.

A.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하려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윤리적 의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절약을 해서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학교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되더라도 이것이 분산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는 더 큰 사회로 나갈수록, 구성원들의 규모가 커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생기고, 추상적인 대안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까짓 거 돈 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더 근본적입니다.

Q. 의식에 변화라는 것이 사실상 힘들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

A. 그럼 사발식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죠?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어떤 의식이나 행동을 선택해서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이죠. 지금 나의 행동이 당장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시절부터 계속해서 윤리 의식에 관해 교육을 받는다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에 대해 별다른 의식이 없었어요. 실내에서 피워도 문제될 게 없었지요. 하지만 요즘은 점점 더 흡연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경 윤리의식에도 교육을 통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그린 캠퍼스 홍보대사들의 활동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A. 일단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확신이 강해야 합니다. 반대의견이 들어올 시 위촉되면 안 될 정도로 강해야 합니다. 많은 곳을 벤치마킹 다니며 배우고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 보려고 해야 해요. 하나하나 큰 활동을 계획해서 실천해보고 다음에 오는 대사들이 또 새로운 활동들을 계속 시작해 나가면 나중에는 많은 활동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고려대학교 Green Campus 뉴스레터 8호



발행인 주진수 관리처장
발행처 관리처 에너지안전팀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편집인 김장환
편집기자 차준하 조선민 윤서영 조하은 김지수 류승현 김재현
전화 02-3290-2765
홈페이지 kugc.korea.ac.kr
인쇄 신사고 하이테크(070-7335-4602)



환경컨설팅 양인목 대표



Q) 환경컨설팅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환경 컨설팅은 환경 기술이나 환경 경영에 관련되어 있으며,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환경 전략 세우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는 환경 관련된 규제 사항들이 구체화되면서, 그러한 규제에 대하여 대응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가 환경에 대하여 요구하는 사안을 고려하기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왔습니다. 한편, 기후 변화 이슈 이전에는 전반적인 환경 관리에 대한 컨설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왔다면, 기후 변화 이슈가 대두되면서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 개선 등 그에 관련한 구체적인 컨설팅 역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컨설팅은 정부 관련 컨설팅과 민간 관련 컨설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 관련 컨설팅은 국가가 환경과 관련한 규제나 관리 방안에 대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민간 컨설팅은 해당 기업들이 필요한 환경 이슈에 대하여 자문 및 지도를 요청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Q) 그렇다면 환경컨설팅과 관련하여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통적인 환경 컨설팅과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SRI(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일로, 환경성 평가에 대한 일입니다. 이는 환경 분야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제가 환경 경영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은 “기업은 이익을 얻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환경에 대한 일을 잘 관리했

을 때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경 자체와 관련하여 기업이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힘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을 움직이게 하려면 투자자와 소비자가 움직여야 합니다. 즉, 환경과 관련한 SRI는 환경에 대하여 관리 평가함으로써 점수가 높은 기업에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주고, 그러한 투자를 받는 기업은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식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Q) 환경과 관련된 SRI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환경성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환경 지표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회사의 평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지만, 환경 지표로만 회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가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회사는 탄탄한 재무 구조 덕분에 전반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 지표들의 가중치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 때부터는 환경과 관련한 사회적 임투자의 임지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기업에 대한 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환경성 평가와 SRI는 당시의 정치적인 철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SRI를 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SRI에서 활용하는 컨셉을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환경성 평가를 할 때, 환경과 관련된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 에너지 절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 지표를 상정하여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라는 기관에서는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절차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불을 끄고, 에어컨을 끄는 등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곳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텔을 예로 들 수 있겠

환경독후감

빛물과 당신 -한무영, 강창래-
그대는 지금 쓰는 그 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하루에도 수많은 양을 사용하는 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무책임했던 나를 변호하자면, 상하수도가 보급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 어렸을 때부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 원래 당연히 물이 나오는 건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 이 물은 어딘가에서 온 것이며 또 어딘가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먼 길을 돌아왔고 나로 인해 또 먼 길을 가야하지만, '지금까지 나는 꽤 무책임하게, 무심코 사용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의 순환과정에서 빗물을 시작점이라고 해보자. 그 빗물을 댐이나 저수지에 모아 정수과정을 거친 후 상수도를 통해 각 가정에 배급된다. 상수도 시설은 하수도를 전제로 하며 도시에는 상수도 시설이 필수적이고 도시가 커질수록 하수처리장이 중요해진다. 상하수도의 보급은 인류의 평균수명을 30년 이상 늘려 20C의 최고의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혔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상수도는 우리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해 주지만 그 과정에서는 수 많은 장치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산 높은 곳 어딘가에 있는 저수지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이 멀기 때문이다. 댐과 지하수의 위험성과 많은 에너지 소모에 비하면 '그린우션'이라고도 불리는 빗물만큼 간단하고 깨끗한 물이 없다. 필자는 빗물이 돈이 안되기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산성비라는 괴담으로 인해 빗물의 가치가 절하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빗물이 산성비라서 사용하기 짝잡하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쓰는 상수도 그 기원은 빗물이니, 이러한 이유로 빗물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의 주장처럼, 빗물의 활용도를 높여 각 건물에서 빗물을 모아 사용하면 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정부에서 수질과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컨트롤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되어, 식수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 내가 사용하는 이 자원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갈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자원과 환경에 대하여 할 때가 아닐까.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윤서영



KU 그린캠퍼스

에너지-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
가상발전소 만들기 나서



수요반응과 에너지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분야 글로벌 선도업체인 에너지이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와 가상발전소 만들기에 나섰다. 에너지는 전 세계 수요반응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수요반응 업체이며, 한국전력거래소 공식 수요반응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는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저탄소와 지속가능성을 핵심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에 속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에너지코리아와 함께 수요반응 거래시장에 총 5560kW를 등록해 에너지를 절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시 산하 17개 시설을 수요반응 거래시장에 등록해 총 5MW를 절약했다. 참여 수익 2억여 원은 기후변화기금에 편입해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재투자하고 있다. 서울시 제안으로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 소속 대학도 함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됐다. 가상발전소 참여학교에는 고려대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 그린캠퍼스, 대학내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 개최



2016년 환경부 그린캠퍼스에서 대학내 친환경 우수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내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주제는 그린캠퍼스 조성의 의미를 담은 작품, 대학 내 친환경 생활 실천, 온실가스 저감 활동 등 그린캠퍼스와 관련된 아이디어 및 실천사례, 그린캠퍼스를 쉽게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한 작품이다. 참가대상은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휴학생으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10명을 선발하였다. 주제 적합성, 실용성,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으며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속가능 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린캠퍼스 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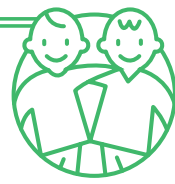
2016년 8월 19일에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6기 그린리더 양성프로그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날에는 대학 내 그린캠퍼스 운동을 이끌어 갈 대학생 그린리더 양성프로그램에서 선발된 팀들이 참가하여 특별강연과 우수팀 발표, 그린리더 활동미션, 2학기 교내 활동 및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일정 등 소개가 이루어졌다. 또한 간단한 캠퍼스 투어 등을 통해 고려대학교 박물관 및 종합상황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 온실가스 목표관리협의회 |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실무협의체입니다.



| 녹색 성북 그린캠퍼스 협의회 |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란?

2012년 3월 2일에 신설된 본교 에너지 위기관리대응 팀은 근래에 증가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 이상 기후 등의 기후문제에 주목하여 다양한 에너지 절약 사업을 실천해오고 있다. 캠퍼스 내의 전반적인 전력사용량을 관리하는 활동 외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그린캠퍼스에 관한 인식을 홍보하고 실천을 이끌어내는 "홍보대사 활동"이 있다. 2012년 7월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기로 시작된 이 홍보대사 활동은 어느덧 9기를 배출하였다. 매년 구성원은 달라지고, 방학에만 활동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홍보대사들은 열정과 적극성으로 교내 에너지 감시 활동, 그린캠퍼스 홍보활동을 하는 등 본교를 그린캠퍼스 (Green Campus)로 만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은 그린캠퍼스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과 학교 사이의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교내 에너지낭비 감시 업무뿐만 아니라 그린캠퍼스 관련 활동 진행과 참여를 통해 본교를 그린캠퍼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활동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Green Campus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 다소비기관인 대학이 주도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활동이 큰 힘이 될 것이다.



▲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의 단체사진
좌측부터 류승현(제어계측공학과), 김재현(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조하은(교육학과), 김지수(영어영문학과), 차준하(미디어학부), 조선민(경영학과)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위촉식



김지수(영어영문학과), 김재현(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조선민(경영학과), 류승현(제어계측공학과) 7명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본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는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에너지 감시 활동, 그린캠퍼스 홍보활동, 손수건&부채 나눔 행사, 에너지회사 벤치마킹, 그린캠퍼스 포럼 참여 및 도우미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기획안 발표회

2016년 6월 27일 미디어관의 에너지 안전팀 사무실에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들이 기획안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진행하고 싶은 캠페인, 행사, 벤치마킹 등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과 각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가 끝날 때마다 백완중 에너지 안전팀 과장의 피드백이 이어져,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날 발표회는 홍보대사들의 그린캠퍼스 활동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 홍보대사들의 기획안 프레젠테이션 중 일부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 방중 교내 에너지 감시 활동
학생들은 인문계·자연계·녹지캠퍼스의 각 건물을 순찰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26℃)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에너지 사용 실태를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빈 강의실에 켜져 있는 전등이나, 책상이 좋은 복도 등지에 켜진 전등을 끄는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권장하는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그린캠퍼스 홍보 활동
본교 에너지 안전팀에서는 기후변화 및 자원낭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캠퍼스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홍보대사들은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고안해 왔고 그에 따른 홍보 계획을 하나씩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홍보대사 9기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 및 중앙광장과 한스퀘어에서 각각 진행한 손수건, 부채 나눠주기 이벤트와 설문조사와 퀴즈 실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실행하였다. 또한 에너지 안전팀의 지원으로 교내 각 부서와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기에 기존의 학생들만이 하던 활동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 방중 교내 에너지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홍보대사들의 모습





KU 그린캠퍼스 활동

홍보대사 9기 벤치마킹

2016년 8월 8일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7명은 서울시 중구 통일로 2길에 위치해 있는 (주) 에너낙 코리아를 견학하였다. 에너낙은 에너지 소비에 대해 3가지 측면,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 접근하여 환경 문제 해결과 기업의 이윤추구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다. 에너지의 공급 측면에서만 바라보던 홍보대사들은 오히려 소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상발전소를 세우는 생소한 개념을 통해 에너지를 바라보는 안목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었다. 견학 중에 정지운 팀장님이 에너낙의 간단한 소개와 에너지 산업의 전망에 대해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고려대학교 선배님과 다른 직원 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청명유치원 방문교육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는 지난 6월 28일 용인시에 위치한 청명유치원에서 환경 교육봉사를 진행하였다. 청명유치원 측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을 초청하여 유치원생들의 환경 교양을 쌓아주고자 교육을 주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봉사에 참여한 8기 홍보대사, 9기 홍보대사 리더를 맡은 홍보대사 차준하군은 “처음하는 교육 봉사라 긴장한 마음에 준비를 꽤 많이 해갔는데 유치원생들의 환경에 대한 지식이 이미 예상보다 수준이 높아 깜짝 놀랐다.”며 소감을 밝혔다.



▲ 교육봉사를 진행하는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모습

에어컨 전기세 계산법 및 절약하기 ‘꿀팁’

“용두사미? 에어컨은 예외”
에어컨은 첫 가동 시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좋다. 에어컨은 처음 가동될 때 전기를 가장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약하게 가동하다 강하게 전환하는 것이 에어컨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뿔이 중헌디, 실외기 체크도 중요”
실외기가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에어컨은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실외기 위치가 중요하다. 실외기는 뜨거운 열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근처에는 장애물을 두지 말고 트인 공간에 설치하는 게 좋다.

“희망온도 유지, 작동은 2시간 이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표한 여름철 숙면을 위한 적정 온도는 25도다. 이보다 낮은 온도로 희망온도를 설정하면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전기요금 이 청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어컨은 더울 때 두시간, 자기 전 두시간 정도 원하는 온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출처: 브레이크 뉴스

손수건 나눔 행사

2016년 7월 12일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는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지하에서 손수건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로고를 새겨 넣어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를 홍보하는 효과를 노렸다. 나눔 행사의 물품으로 손수건을 선택한 이유는 손수건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핸드 드라이거나 휴지를 사용할 때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우분들에게 KU 그린캠퍼스 SNS 팔로우를 요청하여 SNS 홍보를 함께 진행하였다. 그리고 손수건을 받은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손수건 사용 실태와 그린 캠퍼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손수건을 나누는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의 모습



KU 그린캠퍼스 활동

부채 나눔 행사

2016년 8월 5일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는 1차 때 손수건 나눔에 이어 2차 나눔 행사로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부채를 학우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친환경 소재인 한지로 만든 부채에 KU 그린캠퍼스 로고를 써넣어 홍보 효과를 기대했다. 부채를 나눔 물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부채사용으로 냉방적정온도를 준수하여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야외에서도 햇빛을 가려서 자외선 차단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우 분들에게 부채를 나눠줄 때 그린캠퍼스와 관련된 퀴즈를 풀게 하여 그린캠퍼스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 부채 나눔 당시의 홍보 포스터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와 그린캠퍼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 되었다



▲ 부채를 나누는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의 모습

고연전 UCC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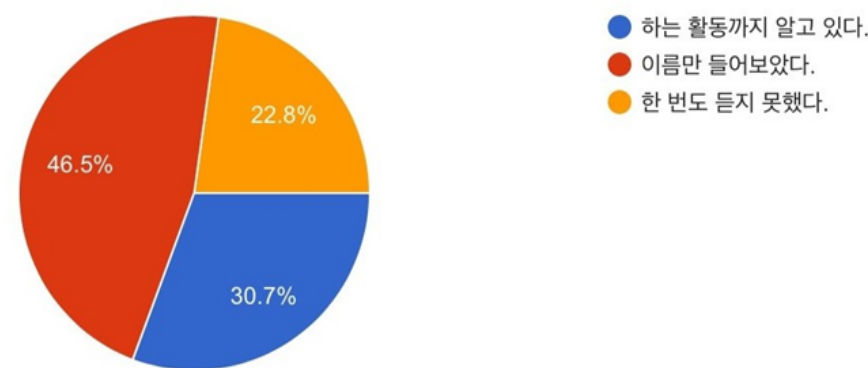
2016년 8월 1일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는 KUBS와 협력하여 고연전 때 방영될 UCC를 제작하였다. 촬영 장소는 화정체육관 내부였으며 고연전 때 연세대 학생과 고려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내용으로 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연세대 학생을 고려대 학생이 혼내는 장면을 통해 대연 영상의 흥미를 더했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또한 UCC를 통해서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도 그린캠퍼스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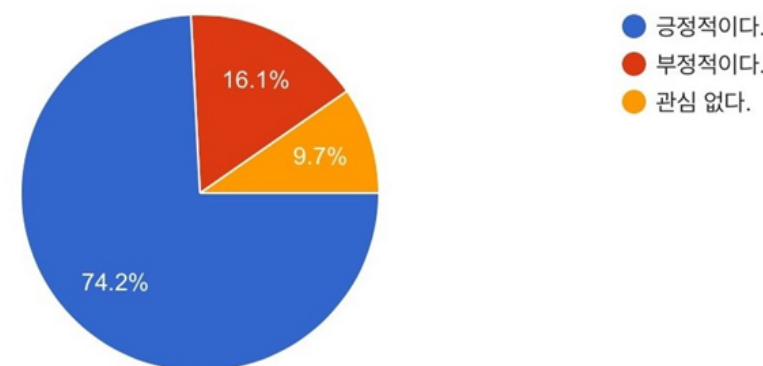
▲ 더운 날씨, 화정체육관에서 고연전 UCC를 촬영하고 있는 KUBS 국장파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들의 모습.

<손수건 나눔 캠페인 설문조사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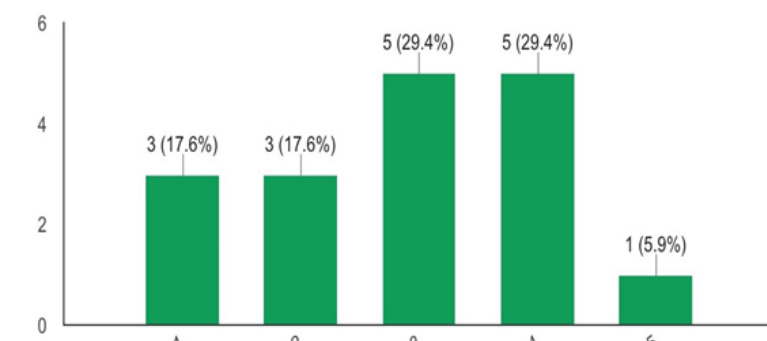
1. 그린캠퍼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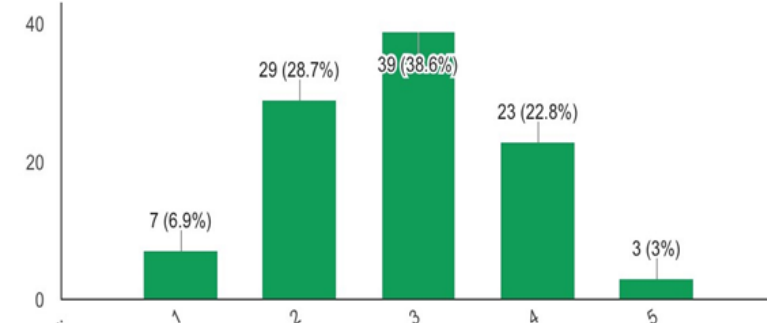
2. 그린캠퍼스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이번 행사로 인해 자신의 환경적 사고가 얼마나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4. 손수건이 휴지를 얼마나 대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후기

처음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난 후 가슴 벅차오르던 설렘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간의 홍보대사 활동을 끝냈다. 학교 순찰, 나눔 캠페인, 벤치마킹, UCC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유난히 더운 날씨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홍보대사 활동이 마지막이라니 어쩐지 아쉬움이 먼저 남는다. 방학 동안의 활동이라 그런지 유난히 짧게 느껴지지만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를 그린캠퍼스로 만들기 위해 홍보대사 친구들과 같이 노력했던 시간들이 뜻 깊고 소중하게 생각되어 진다. 또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로 활동하면서 무의식중에 낭비하는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졌으며 에너지 절약의 생활이 몸에 배었다. 앞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학우 분들의 작은 실천으로 다 같이 만드는 그린캠퍼스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김지수

홍보대사를 하며 우리 학교가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린캠퍼스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홍보대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 학교가 왜 그린캠퍼스인지 알지 못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여러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린' 캠퍼스라기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학우들과 함께 '그린' 캠퍼스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윤서영

이번에 그린캠퍼스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벤치마킹을 가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신사업을 보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고, 나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사실 나는 처음에 그린캠퍼스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학우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린캠퍼스는 홍보대사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이것이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전한 의미에서의 그린캠퍼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학교 캠퍼스를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많은 다른 학우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캠퍼스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만 '그린'이 아니라 속까지 '그린'이 된다면 캠퍼스에 대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그린캠퍼스를 생각하고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의 '그린 캠퍼스화'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이번 활동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조선민

이번 그린캠퍼스 활동은 제게 새로운 영역을 보게 해주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린캠퍼스는 단순히 물리적인 캠퍼스가 아닙니다. 저는 그린캠퍼스라는 것이 21세기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에 녹지를 조성하고, 건물에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만이 그린캠퍼스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 교수, 학교 행정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휴지를 적게 쓰고, 에너지 낭비를 막는 등의 실천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린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그린캠퍼스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과 학생들, 교수님, 그리고 학교 행정가 분들이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작은 데에서부터 실천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그린캠퍼스 활동도 지금보다도 더욱 학생 참여적, 실천 가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그린캠퍼스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지식과 가치들을 배울 수 있

었습니다. 양인목 환경 컨설턴트 분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은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좋은 교육시스템 역시 중요하지만, 명확한 제도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 그린캠퍼스에도 명확한 실천 방침이나 평가 요소들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Eco Ranking과 같이 환경 교육, 온실가스 배출, 대학의 환경 경영 방침 등을 고려하여 대학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것도 현 한국 그린캠퍼스에 있어서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방학동안 그린캠퍼스라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린캠퍼스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관심도 생겨 이번 고려대학교에서 주최되는 Global Presentation Contest에 그린캠퍼스를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린캠퍼스 활동이 캠퍼스 "내"를 넘어서서 캠퍼스 "간"으로 그리고 캠퍼스에서 국가, 세계로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조하은

자신의 홍보대사 업무를 구상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처음으로 시작해 교내 낭비되는 에너지 전력차단, 인식개선을 위한 나눔 사업, 학교에 쓸 만한 기술력과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업으로의 벤치마킹 등 많은 홍보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의 인식개선이 가장 많이 된 것 같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은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우들 및 사람들처럼 나 또한 내가 낸 돈이므로 공공재를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강했다. 하지만 이는 많은 환경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며 내가 직접 서칭하고 활동해보니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는 마인드라는 것을 깨달았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한 번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던 것도 나도 안다. 하지만 나 또한 바뀌었듯이, 다른 학우들과 사람들 또한 변하지 않으란 법은 없다. 처음 맡게 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업무라 홍보에 부족했던 점이 많은 것 같다. 만일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아니 기회가 없더라도 나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 줄 것이며, 발로 뛰는 홍보자가 될 것이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류승현

그린캠퍼스를 알게 되면서 대학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임을 깨닫고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경험, 뜻밖의 경험을 하게 돼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가 된 것이 자랑스러워졌다. 앞으로도 이런 홍보대사를 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지원해보고 싶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김재현

두번의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를 거치며 발전한 것은 비단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생각뿐만이 아니었다. 처음 홍보대사 활동이 끝난 후 그린캠퍼스란 것을 인지하며 학교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학우들의 그린캠퍼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기수활동에서는 '홍보대사'답게 물론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해서도 꾸준히 고민했지만 오히려 학우들의 인식 개선 쪽에 조금 더 치중했다. 비록 활동 자체는 예년과 많이 다르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방향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이번 활동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기수들에게도 응원을 보내고 싶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9기 차준하



본 책은 친환경적으로 개발 관리된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무알코올 인쇄와 식물성 공기를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